

해 · 외 · 정 · 보

석유

러시아, 개방 광구 수를 대폭 줄일 예정

러시아의 Yuri Shafranik 에너지장관은 250개 천연자원 매장지의 개방을 거부한 러시아 하원(Duma)의 요구에 따라 80%정도 줄인 30개 정도 매장지를 하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공산당은 천연자원 매장지의 개방은 곧 러시아의 재산을 외국 회사에게 거처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매장지의 개수를 줄일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Shafranik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하원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향후 2~3년간 필요한 수십개의 매장지들을 먼저 승인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hafranik 장관은 미국 의원들 및 외국 석유회사 관계자들과 가진 런던 회담에서 러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금년 가을에 하원이 유전들의 개방을 승인한다면 Timan-Pechora 프로젝트가 계약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man-Pechora 프로젝트는 북극해의 Timan-Pechora 분지가 대상 지역

이며, 매장량은 석유 3억 6,000만톤, 투자비는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Timan-Pechora 프로젝트에는 Amoco사, Texaco사, Exxon사, Norsk Hydro사와 러시아의 Rosneft사, Arkhangel skgeodobycha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8. 2)

사우디 아람코, Petrogal사와 지분매입 양해 각서 체결

사우디 국영 석유사인 Saudi Aramco사는 포르투갈 Petroleos de Portugal(Petrogal)사의 지분매입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에서 명했다고 사우디 관영 통신(SPA)이 30일 보도했다.

이 양해 각서에서 이 두 회사는 Aramco의 Petrogal사 지분매입을 포함한 양 회사의 합작 사업 전망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적으로 두 회사가 합작 기업을 설립, 이 합작사에 사우디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한다.

Aramco는 이미 Petrogal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매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만일 이 거래가 완료될 경우 Aramco는 금년 3월 그리스 Mortor Oil Hellas사 지분 50%를 획득한 후

두번째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Aramco의 유럽내 석유 하류부문 진출 노력은 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Aramco는 이미 미국 Texaco와의 합작기업인 Star Enterprises사의 지분 50%, 한국 쌍용정유의 지분 35%, 그리고 필리핀 Petron사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7. 31)

IEA 석유수급전망 국제원유수요 내년 크게는다

국제 원유수요는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내년도도 올해처럼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IEA는 이날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 증가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4%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평균 4.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 이에 따른 원유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또 내년도 국제 원유수요가 하루평균 1백 80만배럴 증가한 7천 3백 60만배럴에 이르러 하루평균 1백

70만배럴의 증가를 보인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이 아닌 非OPEC 국가들의 원유공급 급증으로 OPEC 국가의 원유생산 쿼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非OPEC의 원유공급 증가는 약 3분의 1이 영국 북해유전지역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舊소련 독립국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IEA는 또 非OPEC국가들의 원유공급 증가가 내년에도 계속돼 내년에는 하루 1백 50만배럴의 생산량을 보인 올해보다 증가한 하루 1백 60만배럴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도 非OPEC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4천 5백 70만배럴로 지난해의 4천 2백 60만배럴, 올해의 4천 4백 10만배럴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Amerada Hess사, 덴마크령 북해에서 2차 평가정 시추에 성공

Amerada Hess사는 덴마크령 북해의 5,604/29 광구 South Arne 기발견 유전에 대한 2차 평가시추를 성공리에 완결. 2차 평가시추에선 산출시험을 통해 52/64인치 Choke에서 API 35도의 원유가 5,623b/d 생산되었음. '95년 2월의 1차 평가 시추에선 석유 2,500b/d가 생산된 바 있음. Amerada사는 지난 4월 이 유전의 상업성을 공

식 발표한 바 있으며, '98년말 석유생산을 개시할 예정. (7. 25)

■ 이탈리아의 Agip사, 이집트에서 세번째 가스전 발견

미국의 Amoco사와 파트너회사인 이탈리아의 Agip사는 이집트 Nile Delta 지역 Ras El Barr 해양광구에서 세번째 가스발견에 성공했다고 발표. 발견에 성공한 가스전은 Akhen-1로 산출시험 결과 가스 3,600만ft³/d와 컨덴세이트 2,074b/d가 산출되었음. 이번 발견으로 Nile Delta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아졌음. (7. 30)

■ BP사, 북해 Cyrus 유전에서 생산개시

영국의 BP사는 7월 29일 영국령 북해 Cyrus 유전에서 생산을 개시했다고 발표. 최초 생산량은 5천b/d이며, 금주내 12,000b/d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Cyrus는 Andrew 유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 2개 유전의 생산량은 금년말 60,000b/d정도가 될 것으로 BP사는 추정하고 있음. (7. 30)

■ Leviathon Gas사, 미국 해양에서 새로운 석유, 가스층 발견

Leviathon Gas사는 미국 루지애나 해양의 Garden Banks Block 117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 산출

시험 생산량은 원유 4,700b/d, 가스 780만ft³/d였음. 이 광구의 지분은 Leviathan사와 Midcon사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음. 또한 Midcon사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B 72 광구에서도 3,000b/d의 원유와 600만ft³/d의 가스가 산출시험을 통해 생산된 바 있음. (7. 26)

■ 미국의 Santa Fe Energy사, 가봉의 광구에 대한 탐사계약 체결

미국의 Santa Fe Energy사는 8월 1일 가봉의 Atlantic Salt 분지에 위치해 있는 Mondah Bay 광구에 대한 탄화수소 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계약 조건에는 탐사기간은 2년이나,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상업성 있는 석유·가스 발견시 생산기간은 20년이라고 함. Atlantic Salt 분지의 가체 매장량은 약 10억배럴로 추정되며, 이번에 획득한 광구는 면적이 1,536km²인 미 탐사 광구임. Santa Fe사는 이 광구의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8. 2)

■ 아르헨티나 YPF사, 자국분지에서 원유시험 생산

아르헨티나의 YPF사는 Santa Cruz, San Jorge 분지에 위치한 E1 Guada 1-Lomas del Cuy 광구의 Estancia San Justo Oeste-1 탐사공시추를 통해 API 18.7도의 원유

2,400b/d를 시험생산. (7. 20)

CTOC사, 태국, 말레이시아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가스 시험 생산

Carigali사와 Triton 합작사 (CTOC)는 태국/말레이시아 공동개발 구역의 A-18광구에서 평가정 시추에 성공. 이번의 Cakerawala-3 평가정에선 산출시험을 통해 총 원유 3,227b/d, 가스 4,700만ft³/d가 생산됨. 계속적인 평가정 시추 성공에 따라 CTOC사는 추가 평가정 시추를 연기하고, 연말까지 유전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 (7. 22)

러시아의 Gazprom사, 자사지분 일부 매각 예정

러시아의 Gazprom사는 9%에 달하는 자사 매각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매각시기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음. Gazprom사 지분 매각계획은 대통령 선거때문에 그동안 연기되었었는데, 옐친의 승리로 인해 서방 세계의 투자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7. 23)

베네수엘라, 9월경 한계 유전 입찰

베네수엘라는 금년 9월경 10~12개 정도의 한계유전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실시하고 연말 경에는 최종 입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제3차 한계유전입찰이며 대상 유전들은 베네수엘라 동부 마라카이보해 부근 경질 및 중질 유전들이라고 한다. 석유회사들은 이번 입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는 Total과 Amoco가 금년 초 한계유전인 Jusepin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층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7. 24)

중국의 Tarim Exploration 사, 타림분지에서 석유·가스 층 발견

중국의 Tarim Exploration사는 타림분지내 Tazhong 16 구조에 대한 탐사 및 평가 시추 결과 석유·가스 층을 발견했다고 발표. 산출시험 결과 석유 1,340b/d, 가스 10만ft³/d가 산출되었음. (7. 15)

Louisiana Land and Exploration사, 알제리에서 석유·가스발견

Louisiana Land and Exploration사는 알제리 Ghadames 분지 Block 405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 산출시험 결과 원유 15,850b/d, 가스 6,100만ft³/d가 산출되었음. Block 405는 알제리 최대 유전인 Hassi Messaoud 남동부 149마일에 위치해 있음. (7. 16)

ADMA-OPCO사, 아부다비 Adma광구에서 석유·가스 발견

ADMA-OPCO사는 아부다비 Adma광구의 Arab 구조에 대한 Hair Dalma 5 평가정시추를 통해 3개 구간에서 석유 및 가스를 발견. 산출시험에서 총 석유 4,000b/d, 가스 9,000만ft³/d가 생산되었음. (7. 18)

인도네시아, 6개 광구 분양예정

인도네시아 국영석유사인 Pertamina사는 6개 광구를 생산분배계약 조건으로 분양할 예정. 이번에 분양 예정인 6개 광구중, Rembang(7,091km²), Madura(4,192km²), Wowoni(1,030km²) 3개 광구는 입찰 마감일이 '96년 11월 8일이고, sula(13,570km²), Sampang(3,285km²), Pekalongan(6,160km²) 3개 광구는 입찰마감일의 '97년 2월 7일임. (7. 20)

COBHC사, 중국에서 석유·가스 시험생산에 성공

COBHC사는 중국 보하이만의 Bo Zhong 26-2-1 탐사공 시추를 통해 석유 7,800b/d와 천연가스 1,236만ft³/d를 시험생산. 이 회사는 '96년에 12개 탐사공시추와 2만L-km의 신규 탄성파탐사를 수행할 예정. (7. 20)

알제리 광구분양에 신중한 태도 보여

최근 알제리정부는 석유·가스 광구를 외국 석유회사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회사들은 알제리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알제리 국영 석유회사인 *Sonatrach*는 분양대상 광구 선정에 점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위 관리들은 자이언트급 유전인 *Hassi Messaoud*를 포함한 유망 광구를 회수증진(EOR) 프로젝트로 분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실무 관리들은 대규모 유망 광구 대신 소규모 광구를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2년전과는 크게 반전된 것으로서 이는 2년전에 알제리에 진출한 석유회사들이 탐사 개발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알제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알제리는 향후 4년내 석유 생산량을 현재보다 50%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90만 b/d 정도인 석유생산량이 2000년경에는 120만b/d로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7. 9)

Elf사, 에콰도르에서 석유발견

Elf사는 에콰도르 동부에 위치한 제

17탐사광구에서 석유를 발견했다고 발표. 산출시험 결과 지하 2,970m의 두께 15m 석유함유층에서 석유 2,200b/d가 생산되었음. Elf사가 운영권자로 30% 지분을 보유하고 *Braspetro*사가 40%, *Overseas Petroleum and Investment*사가 30%의 지분을 각각 보유. (7. 11)

일본, 석유회사들 카스피해 지역 진출 가속화

일본 석유회사들이 서방 석유회사들의 뒤를 따라서 카스피해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 회사들의 카스피해 진출시도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부딪쳐 이란에 대한 진출시도가 실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회사들의 진출을 서방 석유회사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Sumitomo*사는 이란에서 이미 오랜기간 활동해 왔으나 금년초 미국의 압력으로 이란에서 철수했으며 카스피해 지역을 이란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일본 회사들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Itochu*사이다. *Itochu*사는 지난 3개월간 *AIOC*에 대한 지분을 *Pennzoil*사로부터 2.45%, *McDermott*사로부터 5%를 매입하여 총 7.45%의 지분을 획득했다. 또한 *Itochu*사의 대표단이 6월에 투자기회를 알아보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를 방문하여 *Baku*와 *Supsa*를 잇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투자할 의

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은 10만b/d이다. *Itochu*사는 *Supsa*항의 석유터미널 건설과 그루지아령 북해의 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회사들의 등장은 카스피해의 상류부문 프로젝트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서방 석유회사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일본 석유회사들과 자금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Itochu*사는 *Pennzoil*사로부터 *AIOC* 지분 5%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인 1억 3천 2백만달러를 지불하였으며 *AIOC*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서방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15) ♣